

매일 프로그램으로 거듭나는 <책마을산책>

전문성과 현장성 강화해

KBS 1라디오(97.3MHz/711MHz)의 주말 독서프로그램 <책마을산책>이 확대개편되면서 매일 프로그램으로 거듭났다. 시간대를 일요일 오후 12시대에서 매일 저녁 8시대(8:10~8:56)로 옮겼고, 개편과 함께 진행자도 개그맨 전유성씨에서 수원대 철학과 이주향 교수로 교체했다. 지난 11월 6일부터 새롭게 시작한 <책마을산책>은 처음 한 주간은 소설가 박범신, 이윤기, 시인 박재구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특집으로 꾸며고 11월 13일부터는 정상계도에 진입해 새로운 코너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주향 교수가 진행 맡아

<책마을산책>이 의욕적으로 마련한 코너는 매주 수요일 50분 동안 생방송하는 '집중토론'. 이슈가 되는 책의 저자와 평론가 두명으로 구성된 패널, 그리고 청취자가 함께 참여하는 '패널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해 대상자들끼리 옹고그름을 따지는 고식적 형식에서 탈피, '쓴 사람' '평가하는 사람' '읽는 사람'의 다양한 입장을

들어보는 열린 공간을 지향한다. '청취자가 원하는 한편의 책'도 같은 취지의 코너다. '이주향의 행복한 책읽기'는 MC의 개성을 살린 코너다. 소설작품의 특정 부분을 드라마로 만들어 성우가 읽어주는 '소리로 듣는 책 이야기'는 라디오방송이라는 매체 특성을 십분 살린 코너.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현장성 강화다. '책방나들이'는 서점에 직접 나가 독자들을 만나고 책을 고르게 된 이유 등을 물어본다. '어린이독후감'은 일선 학교의 '특별활동반'을 찾아가 학생들의 독후감을 들어본다. '서가탐방'은 사회 각계 인사들의 개인 서재를 찾아가고, '책마을사람들'에서는 출판·서점업계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또 일간지 문학담당 기자 두명이 각각 '숨어 있는 책이야기'와 '작가수첩'을 맡는 코너도 있다. 읽을 만한 책과 저자에 관한 에피소드를 흥미롭게 구성할 계획이다. 매주 토요일에는 '만화토피아'란 코너를 마련, 붓물터지듯 쏟아져나오는 만화들을 리뷰해준다. 이밖에도 출판계동향,



KBS1라디오의 독서 프로그램 <책마을 산책>의 진행을 맡은 이주향 교수.

신간소식, 해외특파원이 전해오는 책소식으로 꾸며보는 '그 나라의 베스트셀러'를 매주 토요일 접할 수 있다.

국은주 PD는 "기존의 <책마을 산책>이 청취율이 높고 반응이 좋아 확대개편한 것"이라며, "일일프로그램으로 개편한 만큼 기존의 단조로운 포맷과 가벼운 내용소개에서 벗어나 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논의되는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강성민 기자

<인물 이해> 시리즈 1차분 3권 출간돼

현대지성사를 빛낸 사상가들의 삶과 철학 조명해

도서출판 인간사랑에서 <인물 이해> 시리즈 1차분 3권을 출간했다. 현대지성사에서 독창적인 이론을 전개해온 사상가들을 가려 뽑아 그의 핵심 사상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이 기획물은, 독일 유니우스 출판사의 <Zur Einführung> 시리즈를 번역한 것. 1997년 현재 총65권이 출간됐는데, 인간사랑은 이 가운데 <비트겐슈타인> <로티> <미드> <카시러> <라캉> <료타르> <하버마스> 등 7권을 우선 계약했다. 1차분으로 3권을 출간한 인간사랑은 곧 <카시러>를 퍼낼 예정이다.

<비트겐슈타인>(크리스 벅첼, 안정오)은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과 미학이론을 소개했다. '언어게임' '명제이론' '그림이론' 등 언어에 대한 독창적이고도 상대적인 인식으로 체계철학과 진리개념을 파괴한 서양철학의 '이단아' 비트겐슈타인의 진면목을 접할 수 있다.

<로티>(데들레프 호르스터, 박여성)는 미국의 신실용주의자 리처

드 로티의 사상을 서구의 관념철학과 비교해가며 분석했다. 우발성, 언어, 진리, 아이러니, 미학, 정치 등 로티사상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해설했다. <미드>(하랄드 벤첼, 안정오)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조지 허버트 미드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서다. 존 듀이 등 실용주의자들의 위세에 가려졌던 미드의 핵심사상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부록에는 사상가들의 연보, 저서, 관련 연구목록 등을 수록했다. - 강성민 기자

